

“서울교육 새 출발”... ‘통합·협력·회복’으로 4년 이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재선 첫 출근
직원 환호 속 서울교육청 업무 복귀
경쟁후보 정책 검토 통합행정 예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확대 핵심 과제
유아 무상교육 서울·구 협력 강조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직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첫 출근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며 경쟁후보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통합 행정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확대를 새 임기 과제로 제시했다. 또 유아 무상교육 추진 의지를 밝히며 서울시·자치구와의 재정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 들어선 정 교육감은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이동했다. 로비와 계단, 각 층 난간에는 직원들이 빼곡히 모여 당선 축하했고, 정 교육감은 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환영 행사에서 정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이 어렵게 선택해준 결과를 겸허히 받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로 첫 출근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정 교육감은 이날 통합 행정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확대 등을 새 임기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아들이고 앞으로 4년간 서울교육을 이끌겠다”며 “이번 결과는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학생들의 배움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교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민이 체

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새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꼽았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발표한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마음회복학교와 마음치유학교를 조속히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듬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학력 보장과 교원 보호, 교육격차 해소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며 그동안 마련한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제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손이 닿지 않았던 제안도 많이 나왔다”며 “그런 제안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달리 교육은 20년, 30년, 50년 뒤를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며 “화해와 통합의 서울교육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 선거 결과 역시 유념하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관련하여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 강화와 저

출생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인 만큼 재정 문제로 멈출 수는 없다”며 “유아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원 규모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분담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체험학습 위축 원인으로 교사의 안전 책임 부담, 지원 인력 부족, 행정 부담, 예산 문제 등을 꼽으며 “다음 주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무산으로 8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졌다. 정 교육감은 개표율 99.29%(4일 오후 1시) 기준 30.3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였던 조진현 후보는 23.46%를 얻어 2위에 머물렀으며, 윤호상 후보가 14.56%로 뒤를 이었다. 한만중 후보(9.44%), 김영배 후보(7.36%), 홍제남 후보(5.79%), 이학인 후보(4.69%), 류수호 후보(4.33%)가 그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6월 모평 ‘킬러’ 없었지만 변별력 유지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
수학도 난도 완화됐다는 평가
공통 21·22번 변별 문항 꼽혀
EBS “공교육 학습으로 해결 가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어와 수학 모두 초고난도 ‘킬러문항’은 배제됐지만 상위권 변별력은 유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전국 2124개 고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EBS는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지난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수능과 유사하지만,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독서 영역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다룬 13번 문항과 리플라스 식을 활용한 15번 문항이, 문학에서는 작품 감상 능력을 묻는 24번 문항 등이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꼽혔다.

입시업계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임

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본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고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매우 복잡한 고난도 킬러문항은 없었고 EBS 연계도 수험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으며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출제 기초를 유지하면서 변별력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통과목 21번과 22번, 선택과목 28번 문항 등이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21번은 삼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였으며, 22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규칙을 찾아 해결하는 문항이었다.

종로학원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워졌지만 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이사는 “공통문항 21번과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희망두배·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이달 8~19일 온라인 신청 접수
청년통장 1만명·꿈나래 300명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과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저축액의 100%

를 추가 적립해 준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소득은 월 255만원(세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2만원 가능)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600만원에 지원금 300만원이 더해져 총 9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용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나서

위치 안전 패키지 300개 지원
배회감지기·신발 인솔 등 구성

용인특례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위치 안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실종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시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기 위해 총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위치 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위치 안전 패키지는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이 적용된 태그형 배회감지기 1대와 기본 줄, 맞춤형 신발 깔창(인솔)으로 구성됐다. 배회감지기는 신발 깔창 안이나 허리춤, 목걸이 등 다양한 형태로 착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치매환자가 길을 잃거나 실종될 경우 보호자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배회감지기

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수색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각각 100개씩 총 300개의 위치 안전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운데 배회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연령 제한 없이 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경찰청, 하이닉스 행복GPS 등 기존 배회감지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 기업 투자·해외진출 전략 공유

16일 성남기업성장포럼 개최
투자유치·공공조달 방안 소개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전략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와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해외 진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

정이다.

기술을 투자와 매출로 연결하는 성장 전략과 지원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성남지역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비롯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정책자금 활용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등을 공유받게 된다.

전환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서 ‘기술은 있는데 투자와 매출이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기술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소개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교수가 최근 중동 정세 변화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란 시장의 산업·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와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